

일본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의 현재

페미니스트 사상가 다케무라 가즈코(竹村和子)를
추도하며

신하경

필자가 담당한 서평은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해서다. 처음 이 의뢰를 받고, 어떠한 책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다. 중요한 논의 및 서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게다가 착종된) 논의와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페미니즘의 시초로 언급되는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부터, 전후 여성 참정권의 실현, 1960년대 정치의 계절과 그에 대한 반성 속에서 출현한 ‘우먼 리브’ 운동, 1980년대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를 필두로 본격화하는 페미니즘 운동, ‘고용기 회균등법’이나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의 시행, 1990년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의 충격과 페미니즘 운동의 혼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본격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

신하경(申河慶) 숙명여대 일본학과 부교수로, 주 연구 분야는 일본 근현대 대중문화다. 주저로 『모던걸-일본제국과 여성의 국민화』(논형, 2009)가 있고, 공저로는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박문사, 2011), 『‘가미카제 특공대’에서 ‘우주 전함 야마토’까지』(소명, 2013), 『근대 일본의 ‘조선 불’』(역락, 2013) 등이 있다. 현재 전후 일본 영화 및 서브컬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업, 트랜스젠더)나 ‘퀴어’로 불리는 다종다양한 성정체성 논의와 운동, 의료 테크놀로지의 개입, 글로벌화와 ‘생(生)정치’, 서브컬처 등의 문화산업과 젠더/섹슈얼리티의 변용 등 그 어느 한 분야만 다루어도 충분한 정도로 젠더/섹슈얼리티 논의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영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논의하는 것은 망설여졌다. 왜냐하면 위의 논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공유하고 있는 논의의 축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한국의 상황에 따라 소개되거나 논의되는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에 아전인수격인 주석을 부가하는 것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으며, 일본의 현 지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서평에서는 다케무라 가즈코(竹村和子)의 작업을 소개하려 한다. 그 중에서도 출판 순으로, ㉠ 『愛について—アイデンティティと欲望の政治学』(『사랑에 대해—아이덴티티와 욕망의 정치학』, 岩波書店, 2002), ㉡ 『思想読本(10)“ポスト”フェミニズム』(『사상독본(10) ‘포스트’페미니즘』, 作品社, 2003), ㉢ 『境界を攪乱する—性・生・暴力』(『경계를 교란하다—성·생·폭력』, 岩波書店, 2013)을 다루려 한다. 이 논저들에는 ‘젠더/섹슈얼리티’(및 실천으로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다케무라의 방향이 잘 드러나며, ㉠은 페미니즘 이론서, ㉡는 개설서이며, ㉢에는 사상가로서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 다케무라의 활동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케무라는 1954년 생으로, 오차노미즈대학(원) 및 쓰쿠바대학원을 수료하고, 쓰쿠바대학 조교수를 거쳐 오차노미즈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다가, 2011년 향년 5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역자로 알려진 다케무라에 대해 유고집 『경계를 교란하다』(境界を攪乱する)를 편집한 우에노 지즈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케무라 가즈코는 미국문학 연구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략) 아니다. 나는 그녀를 문학 연구가 이상으로 페미니즘 사상가였다고 부르고 싶다.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이트 이해자이자 비평가, 버틀러 번역가이자 해설자이며, 푸코의 담론 이론이나 데리다, 스피박의 탈구축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하였고, 마르크스 이론이나 네그리의 다중(multitude)론까지 논의하며, 문학, 철학, 수사학, 심리학, 사회학을 중흥으로 넘나드는 그녀의 전문분야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인가?”¹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다케무라를 충분히 소개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1990년대 버틀러의 등장과 함께 페미니즘 운동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나, 다케무라는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에 안주하지 않았다. 버틀러, 스피박 등의 사상적 격투 지점을 일본에 소개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론의 실천성’을 자문하는 자기성찰적 글쓰기 속에서 그녀는 일본을 대표하는 페미니즘 이론가로 성장해 간다. 다케무라는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운동)의 실조(失調)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의 중심에서 있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다케무라의 작업을 살펴보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일본의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된다. 이 서평에서는 그녀의 주요 논의점을 주제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이성애주의(헤테로)섹시즘 비판

『사랑에 대해』(愛について)에서 다케무라는 우리가 유일하게 ‘올바른 섹

1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岩波書店, 2013, 408쪽.

슈얼리티'로 인정하는 '이성애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요구에 따라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구축되어 온 결과라는 점에 대해 주로 정신분석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설명한다.

먼저 논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케무라가 사용하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정의를 정리해 보자. 다케무라에 따르면, '섹스'는 남/녀의 신체적 구분에 따르는 해부학적 성차이며, '젠더'는 남/녀의 사회적, 문화적 구별로서, 남/녀를 사회적으로 분별하기 위해 요구되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의 사회적 형성이다.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보다 넓은 의미로 쾌락, 성적 실천, 성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는 에로스(성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나 그것을 통한 아이덴티티의 형성)를 의미한다.²

제1장 「[헤테로]섹시즘의 계보-근대 사회와 섹슈얼리티」에서 다케무라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성차별(섹시즘)과 이성애주의(헤테로섹시즘)를 두 축으로 하는 '올바른 섹슈얼리티'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모든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성적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다케무라는 '[헤테로]섹시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올바른 섹슈얼리티'란 "차세대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낳는 성'인 여성 신체는 자궁으로 수렴되며, 여성의 쾌락도 삽입 행위를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가정 내에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그러한 여성의 자질(여성다움), 수동적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성윤리, 그리고 정자를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서의 여성 신체 이미지가 동일 선상에 중첩됨으로써, 즉 성의 사회적 역할(젠더)과 해부학적 성차(섹스)라는 두 가지 껍선을 왕복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날조된다"³

2 竹村和子, 『愛について—アイデンティティと欲望の政治学』, 岩波書店, 2002, 40쪽.

3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46쪽.

는 것이며, [헤테로]섹시즘이란 이와 같은 이성애주의를 통해 구축된 제도적, 담론적, 표상적 성차별구조를 지칭한다.

이성 간 성행위는 생식 본능에 따르는 ‘자연스런’ 행동이란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인간은 동성애에서만이 아니라 이성 간의 성행위에서도 ‘생식’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수많은 행위를 취한다. 이에 대해 다케무라는 “어떠한 행위를 ‘규범적인’ 성행위로 규정하는가, 그러한 성행위를 야기하는 성 욕망은 무엇인가, 어떠한 이미지로 성적 흥분을 구축하는가 등은 사회,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을 횡단하는 유일, 보편적인 에로스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는 것은 문화/언어에 의해 구축되는 인간의 성행위뿐이며, 생식 행동이란 순수하게 사변적인 개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푸코의 담론 이론을 원용하며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이성애적 성 실천, 성 욕망, 성 환상 등의 이성애적 섹슈얼리티가 문화에 의해 규범으로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섹슈얼리티도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억압해가는가 하는 것은 문화/언어에 의해 탄생하고 재생산된다.”⁴

이처럼 남/녀의 차이를 구조화하는 섹시즘과 이성애주의, 그 가운데서도 차세대 재생산을 중심에 두고 성기=생식적 섹슈얼리티만을 ‘올바른 섹슈얼리티’로 구축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는 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인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생물학적 메타포에 의거하는 생식적 섹슈얼리티만을 용인하고 그 외의 다종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도착적’ 성으로서 배척하는데, 그 이유를 “생식이라는 ‘종족’의 드라마와 개인의 ‘사랑’이란 드라마,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도’의 드라마를 하나로 엮어서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키려는 근대의 픽션”⁵에서 다케무

4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59쪽.

5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98쪽.

라는 찾는다. 근대적 자본주의가 근거를 두는 중산층, 핵가족 단혼제(모노가미) 이데올로기의 산출이라는 것이다.

제2장 「사랑에 대하여」에서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생식적 섹슈얼리티만을 올바른 것으로 구축해 온 근대 사회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고, 정신분석 이론과 근대적 [헤테로]섹시즘과의 공범 관계를 갈파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이에’ (家)제도를 온존하면서 발전해 온 일본 근대 성제도에는 응용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그녀는 “우리들이 근대적 개인 개념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심적 양태를 설명하는 억압적 담론은 프로이트나 라캉의 이론”에 의해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⁶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적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을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성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성 욕망을 ‘본능’이라는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리비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리비도란 성에 대한 생리적·심리적 에너지, 성 충동, 성 욕구 등을 지시하는 개념이나, 이것이 생물학적 결정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리비도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동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즉 리비도는 성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의 문제는 그것이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초기 저작에서는 리비도가 성기를 포함하는 인간 피부의 모든 부위, 모든 부분에 걸쳐서, 모든 행위에 의해 환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나, 남아의 거세 불안과 여아의 페니스 선망이라는 오이디푸스 구조를 거친 후의, 즉 성의식이 발달한 후의 성숙한

6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8쪽.

리비도는 특정한 신체 부위, 즉 성기를 매개로 해서만 충족된다고 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동되는 것이라는 점을 더욱 발전시킨다. 라캉은 ‘거울상(鏡像) 단계’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욕망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성되며 승인되는 것이라는, 즉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계’(언어 질서, 법 질서)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욕망인데, 라캉의 많은 보류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체계를 ‘아버지의 법’으로 부르며, 특권적인 시니피앙으로서 ‘팔루스’(phallus, 남근)를 위치시킨다.

다케무라가 비판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를 성기에 통합되는 발달론으로 파악하는 한, 리비도는 ‘남자의 귀두에서 여자의 질로’라고 하는 일방향적인 운동, 즉 성기적 섹슈얼리티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⁷ 그리고 라캉의 주장에 있어서도 인간은 항상 언어화되어 있으며,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점은 받아들여야 하나, 팔루스라는 메타포를 그 체계에서 불식하지 않는 한 성기적 섹슈얼리티의 특화는 지속되는 것이다.⁸ 이 점이 정신분석 이론이 근대적 [हे테로] 섹시즘과 공범 관계에 위치하는 이유다. 한발 더 나아가 다케무라는 이러한 정신분석의 목적론적 성격을 지적한다. “즉 처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적 리비도=귀두=직립한 페니스=팔루스(남근)이라는 아날로지가 점차 잔상처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투영되어, 심리적, 신체적인 (이성애적 남성의) 욕망이 구조화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다. 그 결과로서 모든 성애는 페니스의 쾌락에 통합되며, 그 외의 성애, 즉 동성애, 페

7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95쪽.

8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97쪽.

티시즘, 새디즘, 마조히즘, 복장도착 등은 병리로서 배제되어야만 한다. 즉 근대적 [헤테로]섹시즘은 “페니스적 쾌락 이외의 것을 불완전하며 이차적인 쾌락으로 주변화하는 거대한 에로스의 해석지도”⁹를 강요한다. 그렇기에 이것은 역설적으로 에로스(사랑)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장 「당신을 잊지 않아」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의 또 한 가지 주요한 측면인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근대적 성애에 대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논의를 진척시킨다. 오이디푸스 삼각형은 “근대적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그 어휘로서 사용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보강하는 장치”이며, “정신분석은 불안정한 존재가 시스템을 수용=종속(subjection)하는 대신에 ‘개인’으로 인정되는 ‘주체화’(subjection) 이야기다. 이때 성적으로 불안정한 존재는 ‘올바른’ 대상 선택에 의해 ‘개인=주체’가 된다”¹⁰고 전제한다.

이러한 정신분석 이론과 근대 핵가족 이데올로기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에서 논의한 바 있다. 즉, 남자는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적 유착 관계를 단념할 때 성 대상만을 이동하면 되지만, 여아의 경우는 성 대상을 어머니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동성애적 욕망(성 목표)까지도 함께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 대상과 성 목표를 한꺼번에 단념하는 이러한 근원적 상실은 상실한 대상을 추도하는 ‘비에’가 아니며, 상실한 것도, 무엇을 상실했는지조차도 망각하는 ‘멜랑콜리’에 의해 해결된다. 이러한 멜랑콜리에 의한 해결은 상실한 사랑의 대상

9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130쪽.

10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196쪽.

을 자신의 내부에 체화하는 작용으로서, 그 결과 어머니가 체현하고 있는 여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소여(所興)의 속성으로서 여성 자신의 신체 속에 내화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 욕망의 상실을 멜랑콜리로 설명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은폐하는 것으로서 섹시즘과 성기적 섹슈얼리티 논리에 의해 무한히 반복 설명되어야 하는 불안정한 조작에 불과하다고 버틀러는 지적한다.¹¹

다케무라는 이러한 현재의 성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버틀러의 여성성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녀 관계’에 대해 논의를 진척시킨다. 멜랑콜리 작용에 의해 ‘여자’는 항상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할 뿐, ‘남자’를 매혹하면서 ‘엄마’가 되지 않는 여자는 대문자 ‘여자’, 즉 대문자 ‘타자’로서 상징계 내부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욕망(비성기적 섹슈얼리티)은 부정되며, 유일하게 ‘모성’(성기적 섹슈얼리티)만이 인정된다. 외성기를 가지고, 여성 염색체와 호르몬이 분비되는 여성만이 ‘엄마’가 될 기능으로서 상징계에 편입된다. 엄마가 되지 않는 여성은 언제까지나 상징계 권역 밖에 존재하는 자로서, 여성성의 자기 동일화가 완료되지 않은 미숙한 ‘딸’일 뿐인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존재는 성기적 섹슈얼리티와 비성기적 섹슈얼리티가 통합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해도 다른 가족에 들어가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완전히 여성의 자기 동일화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딸’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¹² 이러한 다케무라 주장의 의의는, [헤테로]섹시즘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성’적인 것이며, 모성적인 것을 재생산하는 ‘모녀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모녀 관계를 기존의 틀거리 내에서 지금과 같은 것으로 재생산하는 한 현

11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135~136쪽.

12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178쪽.

제의 성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성기적 섹슈얼리티와 비성기적 섹슈얼리티의 불안정한 통합체로서의 여성 신체성, ‘모녀 관계’를 폭로해 갈 때 [헤테로]섹시즘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인식에 있을 것이다.

2. 주디스 버틀러 독해, 그리고 ‘아이덴티티 정치’를 넘어서

다케무라 가즈코는 주디스 버틀러의 일본 소개자로 광범위하게 인지되고 있으나 그녀가 버틀러를 평가하며 공유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은 ‘아이덴티티 정치’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90년대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쇠퇴하게 되는 것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다케무라는 버틀러 등장 of 의의를 평가하면서, “푸코를 포함하여 후기구조주의자들이 의문시한 ‘주체’ 개념을 페미니스트들은 버리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체’로 불리는 것들 중에서도 이념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는 드문 도전인 페미니즘으로서는 그 실천, 운동을 근거로부터 흔들 수도 있는 ‘주체’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면 피해가고 싶은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푸코의 담론 이론을 철저히 페미니즘에 적용한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에 대해 페미니즘 활동가, 이론가들이 보여준 당혹감에 잘 나타나 있다”¹³고 기술한다.

어떠한 식으로 버틀러가 ‘주체’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버틀러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과정, 즉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구축과정이 역으로 ‘섹스’조차도 사변적으로 구축해왔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통해 먼저 해부학적 본질

13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78쪽.

주의를 거부한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를 통해 ‘여성성’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해방주의적 담론에 의해서도 재생산된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의거하는 아이덴티티 정치의 역설적으로 근대적 이성애 체계 모니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젠더 트러블』이 이전의 페미니즘적 저작과 다른 점은, 어떠한 국면에서도 (비록 그것이 페미니즘 운동이나 게이 해방 운동의 정치적 기반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본질주의나 아이덴티티 정치로부터 주의 깊게 거리를 두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함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페미니즘과 아이덴티티 교란」이라는 부제가 바로 표현하고 있듯이, 여자는 레즈비언이든지 간에 어떠한 아이덴티티도 욕망도 자명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언어’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로 성적 이분법뿐만 아니라 게이와 스트레이트의 이분법조차도 이성애적 신체를 무의식적으로 자연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페미니즘에 충격을 주었다”¹⁴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버틀러의 주장은 동시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1990년대 이후 그때까지 사회적으로 부정되고 있던 레즈비언, 게이 남성, 트랜스 섹슈얼 등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는 ‘아이덴티티 정치’가 서서히 표면화된다. 동시대적 흐름인 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이덴티티 정치는 ‘차이’ 속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특권’적인 차이 속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아이덴티티 정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케무라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라는 카테고리 그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이덴티티 정치가

14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34쪽.

그 호칭을 그대로 두고 사회적인 생존가능성을 추구한다면, ‘언어’에 의해 배척된 ‘두려운 것’, 말할 수 없는 것(즉, 타자)은 기존의 언어 속에 적당하게 정의된 것에 머물게 되며, 더 나쁜 사실은 그 부정적 명칭을 일부 사람들에게 카테고리로서 배당함으로써 그 카테고리 사이의 경계를 점점 더 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기존 언어에 의해 명명될 수 없는 자들은 보다 먼 곳으로 추방되어 버리며, 기존의 법은 역설적으로 재생산”¹⁵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실천으로서 다케무라는 현실의 (성)정치를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 ‘아이덴티티의 중단’을 요구한다. “아이덴티티 중단이란 판단 정지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현실적인 실천이기에, 역설적으로, 계속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중단’을 계속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무엇인가의 명칭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즉 여자이거나 여성 동성애자이거나 여성 유색인 동성애자이거나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곳에 아이덴티티는 고정되고, 그 시점에 언어체계가 출현하여 타자의 환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이덴티티 중단의 끊임없는 실천만이 차이가 표면적인 평등에 포섭되지 않는 유일한 아이덴티티의 정치적 실천이라고 할 것이다”¹⁶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케무라는 아이덴티티 중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가능한 길은 아이덴티티의 구축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카테고리과 개별적인 경험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여,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라는 카테고리 내부에서 탈구축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이며 경험적인 차이야말로, 본질처럼 착각되고 있는 카테고리라는 것이 사실은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

15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16쪽.

16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260쪽.

또한 카테고리의 강제력은 강제력이 작동하는 개별적인 장소에서 항상 저항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이덴티티의 탈구축은 ‘동일성 원리’를 역사화하는 것이다”¹⁷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다케무라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정신분석 이론, 푸코, 버틀러, 데리다, 스피박, 후기마르크스주의 등의 개념을 중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현학적인 아카데미즘으로 폄훼되기도 한다. 혹은 겨우 등장하기 시작한 성 소수자의 정치화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버틀러에게와 마찬가지로) 질타받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섹시즘과 이성애주의를 공식적인 섹슈얼리티로 구축해 왔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성애를 도착으로 타자화시켜 왔다. 그렇게 생산된 이성애주의 담론 구조는 그에 부합하는 ‘남자’와 ‘여자’를 재생산해 왔으며, 그러한 남/녀는 역으로 개별적인 경험 가운데 그러한 이성애주의를 재생산함으로써 강력하게 이성애주의 체계모니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재생산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그에 대한 본질적인 탈구축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다케무라의 작업이 주목되는 이유인 것이다.

3. 일본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의 현재

다케무라 가즈코가 영미문학 연구가로서 정신분석, 푸코의 담론 이론, 데리다/스피박의 탈구축 이론 등을 다용하는 글쓰기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그녀의 이론적 실천이 매

17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30쪽.

우 현학적이고 비실천적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접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녀의 글쓰기는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성애주의가 어떻게 구축되고 억압적으로 기능하는가를 그 본질에서 질문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며, 그에 대한 대답의 과정이 선행 이론들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의 저작은 비평이론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의 훌륭한 설명서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다케무라의 작업이 선행이론들의 재검토에 집중된다고 해서 그녀가 현실 사회의 변화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녀의 글쓰기는 그 자체로 ‘행위수행적’(performative)이며, 그 구체적인 예로 『사상독본 10 “포스트”페미니즘』(思想読本(10)“ポスト”フェミニズム)을 들 수 있다.

2003년 출간된 이 책의 서문에서 다케무라는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의 타이틀 ‘포스트’페미니즘에 놀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상하게 느끼거나 이 단어의 사용에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포스트’라는 접두사가 ‘그 후’라는 의미이기에, ‘페미니즘은 끝났다’거나, ‘권리 주장이나 운동의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일본에서는 아직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유통되고 있지 않기에 오히려 이 말을 쓰는 것으로 인해 근래 진행되는 페미니즘 이탈의 심성을 가속할지도 모른다”¹⁸라고 지적한다. 이는 곧 1990년대적인 페미니즘 ‘아이덴티티 정치’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면서도, “페미니즘은 수십 년 사이 확대 혹은 확산되어 왔으며, 동시에 페미니즘을 둘러싼 국내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 상황도 크게 변화해 왔다. 그것은 한편으로 페미니즘(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이나 그에 대한 무

18 竹村和子, 『思想読本(10)“ポスト”フェミニズム』, 作品社, 2003, 1쪽.

관심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페미니즘 자체의 파급력이
 음으로 양으로 강해져 왔다, 혹은 강해지도록 기대되어 왔다는 것의 증
 거이기도 하다”¹⁹고 언급하며 기존 페미니즘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9·11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군사/정보 테크놀로지,
 의료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에서 페미니즘(젠더/섹슈얼리티)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며 어떠한 현안을 상정하는가에 대해 이 책은 지극히 의식
 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목차 속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총 5부 구성으로서,
 제1부 「욕망과 포스트패밀리」, 제2부 「테크놀로지와 신체」, 제3부 「제
 국/글로벌화」, 제4부 「폭력과 새로운 정의」, 제5부 「행정 페미니즘 속에
 서, 행정 페미니즘을 넘어서」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제3부와 제4
 부는 시대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집 방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이 책에 참가한 집필진이 매우 충실하다. 제1부에는 일본의
 ‘퀴어’ 연구를 대표하는 가와구치 가즈야(河口和也)가 「주체와 욕망의
 ‘자유’를 실었으며, 제2부에는 2004년 ‘성 동일성 장애에 관한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 제2판’에 참가한 히가시 유코(東優子)가 「트랜스젠더와
 성별과 의료」를, 생식기술과 젠더 관계에 대해 마쓰바라 요코(松原洋子)
 가 「생식기술과 ‘공공이익’의 정치학」을 기고했다. 제3부에는 무타 가
 즈에(牟田和恵), 이토 루리(伊藤るり), 아다치 마리코(足立真理子) 등 일본
 의 젠더 연구를 선도해 온 오차노미즈 젠더연구센터의 면면들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화와 젠더 재배치, 외국인 가사 노동자 문제 등을 고찰하
 며, 오카 마리(岡真理), 우에노 나오코(上野直子)는 과거 식민지(카리브해)
 여성과 현재 이슬람권(팔레스타인) 여성의 지배체제 현실과 그에 대한 교

19 竹村和子, 『思想読本(10) “ポスト”フェミニズム』, 2쪽.

란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4부에는 국제관계학적 관점에서 도사 히로유키(土佐弘之) 등이 기고해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노정되는 새로운 ‘폭력’의 양상을 고찰한다.

이러한 집필진의 구성에서도 편집책임을 맡은 다케무라의 위치가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이 외에도 총론격인 좌담회 「포스트페미니즘 이론은 무엇을 개척하는가?」와 ‘남녀공동참가기본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를 묻는 토론 등을 배치하고, 페미니즘 이론의 주요 서적과 키워드를 해설함으로써 매우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향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젠더/섹슈얼리티 논의 가운데에서 여기서는 세 가지 주요한 방향에 대해 내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가와구치 가즈야에 의해 제기되는 동성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다. 이것은 주로 미국, 프랑스 등 성소수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치’가 활발히 진행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족’(대체가족, 혹은 확대가족)에 대한 논쟁을 들 수 있다. 이 논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그것을 새로운 인권(예를 들면, ‘관계권’이라는 개념), 혹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인정’(recognition)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가, 아니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국 종래의 이성애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기에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대립 지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새로운 가족’ 논의를 야기한다. 즉, 동성혼이라는 것은 비이성애자가 대안적인 가족 형태를 촉진시키기에,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그 사회 전반에 기존의 가족관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게 된다. 비이성애자에게 종래의 가족은 ‘억압’의 장이며 부정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동성혼’의 제도화는 동성 사이의 파트너 관계나 친밀 관계를 ‘새로운 가족’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생식적

섹슈얼리티에 근거한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²⁰

다케무라는 ‘동성혼’ 실현의 실천적 의의를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아이덴티티 정치’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녀는 「섹스 체인지는 성전환도 성별 적합도 아니다」(『경계를 교란하다』 수록)라는 논문 속에서 TS(transsex, 해부학적 성전환자)에 대한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내부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흥미롭게도 TS 이외에 TS를 논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남자는 종종 의학적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의학 제도 내부의 인간인 경우가 많으며, 여자의 경우는 여성을 멸시하는 성제도를 타파하려는 페미니스트이거나 레즈비언 행동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전자는 신체의 이원론을 고수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적 성차별 폐지에 중점을 두어 자신들의 해방투쟁이 TS와 같은 ‘인공적인 여자’에 의해 ‘능욕’되는 것을 혐오한다. (중략) 레즈비언이나 게이 남성이 다른 것과 같이, TS에 있어서도 FTM(female-to-male)과 MTF(male-to-female)가 놓여 있는 사회환경이나 각각의 심리 상태의 차이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TS 포박적인 말은 마치 그녀들이 혐오하는 가부장제 한가운데에 위치한 남자들의 언어처럼 들린다. 양쪽의 말에 공통되는 내용은 ‘여성의 신체’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순수함’에 대한 집착은 TS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본질화하려는 섹시스트나, 그것을 해방의 근거로 삼으려는 페미니스트나, 그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MTF가 ‘순수한 신체’라는 전인미답의 봉우리를

20 竹村和子, 『思想読本(10)“ポスト”フェミニズム』, 7쪽.

향해 자신이 먼저 오르려고 경쟁하고 있는 듯하다.”²¹ 여기에서 다케무라가 말하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성 소수자 내부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을 아이덴티티로서 고정하는 순간 기존의 [헤테로]섹시즘의 지배구조 속에 재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현행 성제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경고일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의료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젠더/섹슈얼리티의 관계다. 의료 테크놀로지 가운데서도 생식 의료가 중요하다. 현재 생식 의료에서는 난자나 정자, 수정란, 대리출산 시의 ‘자궁’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는 생물 전반의 DNA 정보, 세포, 조직 등도 생체 부품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의 통합성을 해체하는 현 상황에 대해 페미니즘을 포함한 젠더/섹슈얼리티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갖게 되는가가 논의의 포인트가 된다. 현재 상황에서 생식 의료는 이성애 커플의 불임치료를 위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싱글이나, 비이성애 커플이 생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제약받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목적이라면 왜 대리모(재생산할 수 없는 자궁을 대신하는 것)는 인정되지 않는가? 혹은 클라이언트 중 한쪽, 즉 정자나 난자가 기능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신체적 부담이 큰 난자 제공 노동, 임신/출산 노동을 어떤 곳에서, 어떤 조건 하의 여성들이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젠더 격차나 경제 격차는 어떠한 것인가? 클론 기술과의 관련 속에서 비이성애 커플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차세대 재생산을 원하는 경우 그 허용과 금지의 선을 긋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태어나는 아이의 보호는 어떻게 되는가? 실험적 성격이 강하게

21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56~57쪽.

드러나는 생식기술의 안전성은 과연 얼마나 보장되는 것인가? 그리고 임신 단계에서 기형 가능성 등으로 태아를 배제하는 신우생학적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생식 의료는 기존 사회의 [헤테로]섹시즘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불임치료 등 한편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듯 보이면서도 여성을 ‘낳는 성’으로 철저히 한정짓는 생식 의료와 성체제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케무라는 9·11 이후 국제 정세 속에서 진행된 테러리즘과 테러와의 전쟁, ‘폭력’과 젠더/섹슈얼리티의 관계를 ‘생(生) 정치’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진행해 간다.

4. ‘생(生) 정치’와 폭력

다케무라 가즈코의 9·11 이후 ‘폭력’과 젠더/섹슈얼리티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사랑의 대하여』 결론에서부터 예고되고, 『‘포스트’ 페미니즘』에서도 의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들은 유고집 『경계를 교란하다』에 실려 있다.

다케무라는, 예를 들어 미군의 이라크 침공과 아브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한 미군의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특히 여군에 의한 성적 학대 사진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젠더/섹슈얼리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푸코, 네그리, 아감벤의 ‘생 정치’ 이론을 도입한다.

그렇다면 먼저 다케무라가 도입하는 생 정치 이론을 정리해 보자. 푸코는 『성의 역사』 등을 통해 근대의 큰 특징으로 ‘생 권력’(바이오파워)이 테크놀로지의 진전과 글로벌화에 의해 생명을 전면적으로 통합해 가

는 양상을 지적한다. 생 권력이란 과학적 연구, 행정조직, 일상적 통념에 의해 신체에 대한 규율, 표상과 인구 조정을 개입시켜 신체의 형성과 관리가 행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즉 건강, 위생, 식료, 출생률, 성행위 등에 대해 관리를 행하며 이러한 다양한 영역이 정치적 초점이 되어감에 따라 더욱 그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게 된다. 네그리는 『제국』 등에서 이처럼 권력이 생의 양태에 개입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시민/국민의 생을 감시, 관리하는 최적의 형태가 ‘복지국가’라고 주장한다. 즉 복지국가의 발전은 노동력을 최고의 상태로 관리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 등에서 1990년대 이후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자본이 결합하여 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인구의 선별을 강화해 가는 양상을 묘사한다. 즉 장기이식, 생식 의료, 미용 성형, 투기적 식료 투자, 에너지 자원 관리 등은 한편으로는 시민의 생을 완전한 형태로 보전하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빈민을 양산하게 된다. 아감벤은 이것을 ‘열외 상황’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배제 메커니즘 자체가 제도의 규범적 배치에 배제된 것을 통합해 가는 상황 속에서는, 시민과 비시민[혹은, 호모사케르-헐벗은 삶(bare life)을 사는, 살아 있지만 그 사회에서 죽어도 좋은 무의미한 존재]의 경계는 항상 불안하며, 열외 상황은 계속해서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항상적 내전’(civil war)을 불러일으키게 된다.²²

다케무라는 이러한 생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아브그라이브 교도소 학대 사진을 해석한다. 이 학대 사진이 미국 내외의 비난을 받게 되어 그 병사들은 군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데, 다케무라는 그 이유가 “병사들이 군 및 국가의 법규를 침범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병사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애초에 경계 영역에 은닉되어 있어

22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277~279쪽.

야 할 호모 사케르를 시민 영역에 (사진이라는 형태로) 알렸기 때문”²³이라고 주장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병사들이 호모 사케르로 추락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열외 상황의 불안정성을 지적한다. “간수들은 국가나 군 지배세력에 지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문화에도 종속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에 종속되면 될수록 그 시스템이 세계 각지에서 생산해 내는 엄청난 숫자의 호모 사케르 살해 집행자로 전략하게 되며, 그 결과 그와 같은 폭력이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순간, 즉각 그/녀들 자신이 호모 사케르화되어 배제되어 간다.”²⁴

그렇다면 테크놀로지와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진전되는 시스템은 어떠한 것인가? 다케무라는 여성 병사가 이라크인 수감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사진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군은 이라크인에 대한 효과적인 고문으로써 여성 병사에 의한 성적 학대(아랍 문화의 남성 중심주의 때문에)와 동성애적 성행위의 강요(아랍 문화의 동성에 혐오 때문에)라는 수단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문을 집행한 병사, 특히 여성 병사가 규탄을 받은 이유도 그와 같은 논리, 즉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게 남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거나 ‘동성애라는 스캔들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보이는 논리 구조는 성 차별화하지 않고 욕망을 향유하는 현대의 소비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 그것을 전술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성의 축으로 분배되어 있는 종래형 주체 구축이 담보하고 있는 안전핀을 교묘하게 비틀려는 것이며 (이라크인 성적 학대의 의도), 그것이 비난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원래대로의 [헤테로]섹시즘과 오리엔탈리즘으로 가득찬 욕망 담론을 전면에서 내

23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345쪽.

24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350쪽.

세워, 폭력 행위를 종래형 개인 주체의 욕망으로 귀착시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기회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자기방어 시스템인 것이다.”²⁵ 이와 같은 신랄한 비판에 다케무라의 페미니스트 사상가로서의 실천성이 잘 드러나 있다. 다케무라는 이 아브그라이브 사진 분석의 일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글로벌화와 테크놀로지의 심화는 종래의 시스템, 특히 [हे테로]섹시즘이라는 젠더/섹슈얼리티 편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폭력’을 노정하게 되는가에 대해 지극히 현실 참여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 간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케무라 가즈코의 저작은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의 과정과 깊이를 보여준다. 그녀는 근대 사회가 [हे테로]섹시즘이라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를 양 축으로 하는 성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본질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아이덴티티 정치는 기존 지배 시스템에 포섭되고 그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의료 테크놀로지가 제기하는 새로운 논의점, 글로벌화와 기존 (성)지배 시스템이 야기하는 폭력성 등을 지적했고 기존의 지배 논리를 ‘교란’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적인 글쓰기를 계속해 왔다. 바로 이러한 ‘실천성’이야말로 그녀의 페미니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25 竹村和子, 『境界を攪乱する一性・生・暴力』, 352쪽.